

# ACC 공간 읽기... '어둠을 만나러 가는 길'

27~30일 관객참여형 공연  
공간의 역사 되짚으며  
자신의 내면 찾는 여행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ACC 일대에서 선보이는 장소 특장적 공연 '어둠을 만나러 가는 길' /ACC 제공

어둠이 짙게 깔릴 무렵, 관객이 하나 둘씩 지하 예술극장으로 찾아온다. 이들은 웹에 제작된 지도를 따라 혼자서 산책로와 광장을 탐색한 뒤 다시 이곳으로 모인다. 웹 지도에 담긴 이미지와 영상, 소리, 문자는 도시가 들려서기 전 이곳, 역사의 한 장면이었을 이곳, 그리고 2022년 오늘을 이야기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오후 8시와 9시 하루 두 차례 ACC 일대에서 장소 특장적 공연 '어둠을 만나러 가는 길'을 선보인다.

'어둠을 만나러 가는 길'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를 걸으며 관람하는 장소 특장적 공연이다. 관객은 웹 상에 제작된 '어둠을 만나러 가는 길' 지도를 따라 혼자서 산책로와 광장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기존 극장 공연 관람 방식을 탈피해 관객이 ACC 곳곳을 걸으며 옛 전남도청 공간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자신의 내면을 찾아가는 관객 참여형 작품이다.

탐색 장소는 '자연의 어둠으로 돌아가는 길', '옛 전남도청에 쌓인 역사적 시간을 되짚어 보는 길', '마음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길' 등 세 가지 주제로 구성했다.

이 공연은 전당의 장소성에 새로운 서사를 덧입혀 관객이 사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선사한다. 시간이 중첩된 길을 걸으며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고민해보고, 전당의 장소성에 색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다.

'어둠을 만나러 가는 길'은 코로나19가 극에 달했던 지난 2020년 ACC 레지던시 창작품 시연으로 처음 선보였다. 전당의 장소성에 주목해 자연의 어둠과 도시의 빛이 대비되

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역사적 상황들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이동 경로를 설정했다. 올해는 지난 작업에서 모두 담지 못한 이야기 몇 가지를 웹 상에 담았다.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을 동시에 오가며 더 풍성한 공간 읽기의 가능성을 실험했다. 섬우주는 김혜림, 배일리홍, 전강희로 구성된 창작집단으로 관객이 공간 안에 머무는 시간이 온전히 사적인 체험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 실험을 통해 탐색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강현 전당장은 "관객이 기존 전당 공간을 새롭게 경험할 뿐 아니라 장소성과 시간성,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상황 속에서 예술가가 관객과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시도에 참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번 공연의 의미를 부여했다.

공연은 전 회차 무료다. 사전 예약과 작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화 기자

전남관광 디카시 '웃음꽃 전남'

팔영대교 홍천수

국립공원 팔영산 정기를 엮어 고흥과 여수를 잇는 가교 사람과 섬이 맞닿아 벽해상전

적금 해안 서대 회 낭도 젓새م 먹거리의 조화 여행꾼들 불려한 표정에 다도해 낙조 무색하구나



## 키르기스스탄 문화자원 디지털화 추진 ACC, 올해부터 4년간 지원 양해각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국립박물관의 문화자원 디지털화와 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돕는다.

ACC는 최근 키르기스스탄 디지털통합문화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를 수도 비슈케크에서 체결했다. <사진> 양해각서는 올해부터 향후 4년 동안 ACC가 키르기스스탄 문화부를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관한 기본 합의를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ACC는 키르기스스탄 문화부 및 소속 주요 박물관과 협력해 ▲디지털 문화자원통합관리시스템(CRMS) 구축 ▲유·무형 문화자원의 디지털라이빙을 통한 문화콘텐츠 공동개발 및 장·제작 ▲정보기술(IT) 기반 문화자원 관리 및 활용 인적자원 역량강화 ▲문화자원 디지털화 작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최진화 기자

## 바로크부터 현대까지 아리아 선율

### 오늘 광주문화재단 월요콘서트 크로스포맨, 감동적 공연 선사

7월의 마지막 월요일 바로크부터 근·현대 시대까지 오페라 아리아, 유럽가곡을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무대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25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크로스포맨이 들려주는 바로크로소포맨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월요콘서트를 펼친다.

이번 공연은 '크로스포맨'의 젊은 열정과 패기 넘치는 감동적인 무대다. 바로크부터

근·현대시대까지의 오페라 아리아, 유럽가곡 등의 대표적인 곡들을 '크로스포맨' 만이 들려줄 수 있는 구성으로 선보인다.

공연단체인 성악 앙상블 '크로스포맨'은 10명의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젊은 실력파 연주자로 구성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및 기획공연, 지자체 초청공연 등 다수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시민과 함께 공감하며 소통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날 공연 출연진으로는 소프라노 서하은, 테너 김정호·김태성, 바리톤 장준행·조재경·윤형, 피아노 신하나·김혜안·김보람·김성중이 나선다.



크로스포맨 /광주문화재단 제공

월요콘서트 관람은 선착순 100명에 한하며, 공연장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관람신청은 전화(빛고을시민문화관 062-670-7926)로 하면 된다. /이나라 기자

##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받는 기업

**현대로오텍(주)**

**현대이엔티(주)**

생산 및 품질인증시스템의 구축은 물론 **고품질, 고효율, 유지보수**에 편리한 제품 생산을 위해 임직원 모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완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가치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b>생산품</b> 수배전반(고압반, 저압반, 전동기계어반, 분전반 등)	<b>태양광EPC</b> 태양광시공 및 분양, ESS, 전기공사, 유지보수
<b>현대일렉트릭 특약점</b> 비상발전기, 변압기, 모터, 차단기, 태양광PCS	<b>변전소네티킹공사</b> 154/345kV S/S 공급 시공, 시스템설계, PM

■ 154kV 해남변전소

■ 태양광발전소-PV+ESS

■ 건물 지붕 태양광

■ 몰드변압기

■ 배전반

■ 주전선실 배전반

**대표이사 노정규**  
C.P 010-3573-1323  
Homepage <http://rotech.kr>  
E-mail [rotech@rotech.kr](mailto:rotech@rotech.kr)

광주본사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연신로 340 (연제동) 현대로오텍(주)  
TEL : (062) 972-4491 FAX : (062) 972-8863  
목포공장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불3길 14 (난전리) 현대이엔티(주)